

2025 새해 이렇게 정인화 광양시장

“관광 기반 확충·신사업 육성...살고 싶은 도시 비전 실현”



순천대 광양 첨단신소재연구센터 내내 완공...첨단소재 인재 양성 백운산권 산림박물관 상반기 개관...벤처기업 발굴·스마트팜 육성도

“평생 살고 싶은 도시”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1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확충, 청년에게 매력적인 농촌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다지는 새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를 위해 이차전지와 수소경제를 기반으로 강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해 첨단산업의 중심지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차전기 소재 산업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이차전기 소재부품 직접 재활용 기술 기반 구축사업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순천대 ‘광양 첨단신소재연구센터’를 내년까지 준공해 2년 차를 맞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으로 이차전기, 수소 등 첨단소재 분야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정 시장은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와 탄소중립 전환 재지원화 기술실증지원센터,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개소로 주력 산업 연구개발과 고도화를 극대화하겠다”며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과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쾌적한 근로조건과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곡 신급2 일반산업단지과 광양 죽림농공단지 개발에도 속도를 내 신규 수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광양체인지업그라운드를 하반기에 개관하고 벤처밸리 육성 사업 추진으로 광양을 전남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생태 관광지인 백운산권은 산림박물관을 상반기에 개관하고, 백계산 동백정원은 연말에, 백운산 산림복지당은 내년까지 차례로 준공해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발전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과 도선국사 사당수련관 건립 사업을 착공해 이른시일에 완료하도록 하고, 백운산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은 토종식물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이다.

정 시장은 농촌에 살아도 도시민 수준의 소득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농산어촌을 만들도록 광양형 농업 혁신 모델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광양형 스마트팜과 청년농업대학 운영 등 첨단 농업 기술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미래형 청년 농업인 육성 방침을 밝히고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동지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변화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 방안으로 신소득 작목 집중 육성,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재배 환경을 개선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서는 임신 지원금과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출생장려금 지원 대상과 요건을 완화,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산

후조리원 개원, 어린이집 AI푸드 스캐너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이키움센터 확대, 아동 중증질환자의 진료 교통비 지원 도입, 교육복지 사각지대 아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개관 등 청소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도시를 위해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이 찾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와 이차전기 소재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 등 청년 취업 교육 강화, 기업체와 업무 협약 추진으로 지역 청년 취업 확대, 구직자-구인기업 간의 일자리 매칭제 해소, 빈 점포 활용한 청년 사업가 발굴과 창업 지원, 구직 단념 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년의 취·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인화 광양시장은 “새해에는 삶에 지친 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께는 힘찬 응원과 용기를 드렸다”라며 “시민과 함께 ‘승풍파랑’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순천 출생아수, 6년 연속 ‘전남 최다’

지난해 1452명 전년비 2.9% 증가...출생수당 등 지원책 결실

순천시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1452명을 기록해 6년 연속 ‘최다 출생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명(2.9%)이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부터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출산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지원 확대 등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출생아 수 최다 행진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출산장려 정책은 ▲출생수당 지원 ▲돌봄센터 이용아동 방학중 급식비 지원 ▲어린이

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연령별 보육료 50%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시는 ▲출산장려금 2000만원까지 확대 ▲산후조리비용 확대 ▲초등학교 입학금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개원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체계 개편 등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주거, 일자리 등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인구는 2024년 말 27만6329명이며, 그 중 청년인구 비율은 33.7%로 전남평균 28.3%보다 많은 젊은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만족도 92%

신체활동 개선 57%·식생활 개선 46%·약력유지율 83% 등



곡성군의 'AI-IOT 어르신 자조 모임' 모습. (곡성군 제공)

곡성군의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신체활동 개선이 57%에 달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대해 10명 중 9명은 만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곡성군이 지난해 지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15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사후 평가에서 나타났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손목활동량계·블루투스 혈압계·혈당계·체중계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는 6개월 동안 '오늘 건강'이라는 앱으로 연동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혈압측정, 걷기 등 미션 수행과 건강 상태 측정 및 건강 위험 요인을 통한 상담·연계 서비스를 제공받고, 만족도 조사 등에 답한다. 군은 사업 미션을 달성한 어르신에게는 곡성심정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 참여자 155명 중 88명(56.7%)이 걷기·중강도 운동·근력운동 등을 통해 신체활동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6.6%는 매일 세끼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식품섭취의 다양성 등 식생활 개선이 이뤄졌으며, 약력유지율도

82.8%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개선 효과가 뚜렷한 점을 반영하듯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92.4%로 높게 나타났다.

매년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사업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AI-IOT 어르신 자조 모임'을 운영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전남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해 어르신 맞춤형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기기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기워 원활한 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봄 반려로봇인 다솜이 지원 사업도 진행해 말벗·복약지도·보건교육·우울감 해소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4.5점으로 높은 호응을 보였다.

곡성군 관계자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현재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061-360-8957), 해당 면 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여수시 고향사랑기부금 7억 모금 목표 236% 달성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98%
2년간 누적액 11억1800만원
모금 상한액 500만원→2000만원

여수시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로 총 7억7000만원(6699건)을 모금해 목표액 3억원의 236%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부터 2년간 누적 모금액이 11억1800만원(1만74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전체 기부 건수의 98%는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차지했으며, 답례품으로는 갖가지와 간장게장, 멸치, 생선세트, 여수상품권 등이 인기를 끌었다.

시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출항 인사와 산단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동과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추진했으며, 실제로 12월 한 달간 전체 기부액의 51%가 모금됐다. 또 여수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다섯이와 기부하고 요트탈래?’ 영상 게시를 비롯해 다양한 경품 제공 이벤트로 기부자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500만원



여수시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7억7000만원을 기록해 목표액의 236%를 달성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캠페인 모습. (여수시 제공)

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50개 업체, 124종의 답례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한 해 여수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내주시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 사업에 가지 있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지정기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부는 전국 농협장구를 통해 가능하며,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 ‘위기브’ 누리집, 금융기관(국민·신한·기업·하나은행) 앱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산수유꽃축제, 3월15일부터 9일간

지리산은천관광지 일원 ...바가지요금 근절 강력 추진

전남의 대표적인 꽃축제인 구례산수유꽃축제가 3월 15일부터 9일간 열린다.

구례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구례 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6회 구례산수유꽃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광 환경 개선과 지역 소득 증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보다 품격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구례산수유꽃축제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는 3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산동면 지리산은천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올해는 꽃축제 본연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 야시장을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역 음식점의 참여를 확대해 풍성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 행사장의 기능을 개선해 방문객 편의성과 축제장의 활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제 프로그램을 강화해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

다. 황종성 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산수유꽃축제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산수유꽃축제의 성공 덕분에 작년 1분기 생활인구 통계에서 우리 구례가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지역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구례산수유꽃축제와 구례 300리 벚꽃축제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하는 봄꽃 여행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례 300리 벚꽃축제는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시천체육공원과 문정면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에 ‘안심 팔찌’

75세 이상 5820명 대상 배포...신원확인 개인식별번호 담아

보성군이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치매 안심 팔찌를 배포한다.

보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의 실종 문제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치매 안심 팔찌 제작·배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치매 안심 팔찌’는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지원하는 의미로 육으로 제작됐으며, 실종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돼 있다. 또 치매어르신 실종 시 빠르게 경찰서와 보건기관에 연계된다.

현재 총인구 3만7000여명인 보성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6247명 중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이 8875명이다. 치매 안심 팔찌는 보성군 보건소와 경찰서, 읍면, 지역주민이 협력해 고위험군 582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이전까지 ‘치매 안심 팔찌’를 차례대로 배부할 예정이다.

군은 또한 치매 환자를 비롯해 부양가족을 지원하



기 위해 ‘치매파트너’ 180명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돌봄서비스 등을 실시해 지역 내 치매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